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시각체험 『성곽』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경기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5가지 테마로 나눈 한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오감 (the five senses)은

- 미각 (the sense of taste),
- 시각 (the sense of sight),
- 후각 (the sense of smell),
- 청각 (the sense of hearing),
- 촉각 (the sense of touch)을 말하며
각 회차 별로 한 가지의 테마를 체험합니다.

문화는 국경과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문화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를 만나다.

근로자로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처음 발을 디딤니다.

내 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김새도 나와 닮은 나라.

걱정도 많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이 길을 선택했던 목적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가족 생각에 고향 생각에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 낯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듣는 가족의 목소리.
힘내라는 한 마디에 나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던 사람들이 날 보며 웃어주듯이
이젠 나도 어렵고 다르다고만 느꼈던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서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口 체험

시각체험 『성곽』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사업목적

- 경기도의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 경기도내 전통문화를 테마로 나누어 체험함으로써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이해 고취와 다문화 커뮤니티 사회 구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의 계기

◆ 행사일정

- 1차 : 2008년 10월 23일(목) - 시각체험 (수원 - 성곽)
 - ▶ 화성홍보관 견학, 수원 화성 견학, 무형문화재 전수관 견학, 수원역사박물관 견학 등
- 2차 : 2008년 10월 26일(일) - 촉각체험 (이천 - 공예)
 - ▶ 해강도자미술관 견학, 도자기 강좌, 도자기 만들기, 도예촌 또는 세계도자센터 견학 등
- 3차 : 2008년 11월 2일(예정) - 후각체험 (김포 - 茶)
 - ▶ 다도 박물관 견학 및 다도예절 교육 등
- 4차 : 2008년 11월 6일(목) - 미각 체험 (여주 - 음식)
 - ▶ 오감도토리마을 방문 및 체험(도토리묵 만들기 등)
- 5차 : 2008년 11월 9일(일) - 청각체험 (안성 - 음악)
 - ▶ 소리 박물관 견학, 남사당전수관 공연 관람 및 체험 등

◆ 사업개요

- 일 자 : 2008년10월 23일(목)
-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수원 화성 일대
- 주 제 : 시각체험 - 성곽
- 참가대상 :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 참가인원 : 42명 (진행요원 포함)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50	화성홍보관 관람(3D 애니메이션)	
11:00~11:30	무예24기 공연 관람	
11:30~12:10	화성행궁 견학	
12:10~13:10	중식	
13:15~13:45	화성열차 (팔달문-연무대)	
13:45~15:15	화성 견학	
15:15~15:45	무형문화재전수관 견학	
15:45~16:05	이동	
16:05~17:05	수원역사박물관 견학	
17:05~	귀가	

목 차

◆ 한국문화

문화일반	3
한국의 문화상징	4

◆ 시각체험 - 성곽

화성홍보관	9
무예24기공연	10
화성행궁	11
무형문화재 전수관	22
수원 화성	25
수원 역사박물관	39

◆ 참가자 명단

43

한국 문화

시각체험 『성곽』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문화 일반

♣ 언어 - 한국어

표준어는 '현재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중류층의 언어'이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투리를 쓰지만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 문자 - 한글

♣ 종교

한국은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 중 53.6%가 종교를 갖고 있다(1999년 기준). 불교 26.3%, 기독교 18.6%, 가톨릭 7.0%이며, 그 밖에 천도교, 원불교 등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종교와 다양한 소수 종교가 있다.

♣ 스포츠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프로축구인 K-리그를 비롯하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다양한 프로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몇 가지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 레슬링, 유도, 태권도, 탁구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골프 분야에서도 많은 스타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 대중문화

한국은 뛰어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문화국가이다. 고전예술과 대중예술이 두루 한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손꼽히는 것은 영화산업인데, 2004년에는 칸느,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감독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휩쓸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가요,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문화 상징

♣ 한복



한복은 2000년 전부터 입어 온 한국인의 옷이다. 한복은 넉넉하고 부드러운 옷으로 남자옷(바지저고리)과 여자옷(치마저고리)이 조금 다르다.

추울 때는 외출복으로 남녀 모두 두루마기를 덧입는다. 발에는 양말과 비슷한 버선을 신고 가족신이나 고무신을 신는다.

오늘날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다.

♣ 탈춤



탈춤은 탈(가면)을 쓰고 등장한 인물들이 펼치는 민중 연극이다. 가난한 백성, 하인, 천민이 자신들을 억누르는 지배계급을 놀리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은 저항과 풍자가 담긴 탈춤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풀어냈다.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따라 이야기와 춤이 다르므로 등장하는 탈도 다르다. 탈춤은 일본 강제 점령기에 금지되어 사라졌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활

발해졌다. 지금은 직접 탈을 만들고 탈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 고려인삼



인삼 뿌리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인삼은 피로를 풀어주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인삼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산출되는데, 한국 인삼(고려인삼)이 가장 좋은 인삼으로 꼽히고 있다. 고려인삼의 신비로운 약효는 17세기 초부터 널리 알려졌다.

인삼은 처리 및 보존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밭에서 수확한 인삼은 '수삼'이라 하고, 수삼을 건조시킨 것을 '백삼'이라 한다. 또 수삼을 찌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 한다.

인삼을 가공한 상품으로는 인삼차, 인삼주, 분말, 절편, 초콜릿, 사탕 등이 있다.

♣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술 중의 하나이다. 한국 전통무술에는 태권도 외에도 손을 사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백치기, 섬세하고 부드럽게 몸을 놀리면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태권, 검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전통무술은 태권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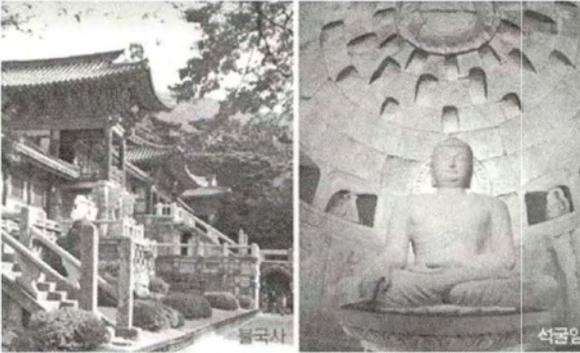
오늘날에는 올림픽의 경기종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는 기술보다 정신적 수련이 더 강조되며, 신체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어린이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태권도를 많이 배운다. 전국 곳곳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도장이 있다.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문화상징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에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 이 중 서울에 있

는 창덕궁과 종묘, 수원의 화성,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 한글과 조선시대 왕조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 불국사와 석굴암



오랜 불교국가였던 한국에는 사찰, 경전, 불상 등 불교에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서기 751년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불국사는 사찰건물만이 아니라 팔려 있는 탑과 조각품 모두가 신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것들이다.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 안에 돌로 만든 대형 부처님을 모셔놓은 석굴암은,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건축기술로 뛰어난 신라시대의 불교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전왕의 업적을 칭송하며 지내는 제사와 이때 연주되었던 음악과 노래 등 왕조 제사 문화 일체를 뜻한다. 한국의 왕실에서 연주되는 각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이 총동원되며 장중하고 우아하다. 서울 종로 4가에 있는 종묘에서는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제례를 재현한다.

♣ 한글

한글은 15세기 중반,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대왕이 만든 것으로 아주 과학적인 글자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시각체험-성곽

시각체험 『성곽』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여 백

화성 홍보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화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함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관람시간	12월~2월 : 오전 9시~오후5시 3월~11월 : 오전9시~오후6시 ※입장은 마감시간 30분전까지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문의	수원시 팔달구 팔창길 16(남창동 14) TEL 031) 228-3785
1F	홍보실 / 기념품점
2F	축성실 / 시련과 미래실
3F	기획전시실 / 3D 영상실



무예24기 공연

정조의 명을 받은 실학자 이덕무, 박제가와 무예의 달인 백동수가 1790년에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를 말한다.

『무예도보통지』는 조선 전래의 무예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우수한 무예를 적극 수용하여 '24기(技)'로 정리한 무예교범서로서 부국강병의 실학정신이 담겨 있다.

무예 24기는 화성에 주둔했던 당대 조선의 최정예부대 장용영 외영 군사들이 익혔던 무예로서 역사적 가치는 물론 예술적, 체육적 가치가 아주 높은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이곳 화성행궁의 북군영과 남군영에 주둔한 군사들 또한 24반무예를 수련하여 행궁호위에 최선을 다했다.

화성 행궁의 복원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민족의 건강한 몸짓과 활달한 기상이 담긴 무예 24기의 시연을 펼친다.

일시	3월~12월(휴관일인 월요일 제외) 화~일요일 11:00~
장소	신평루앞 광장
주관	(사)무예24기 보존회
내용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24가지 실전 무예 시연



화성행궁

♣ 화성행궁의 설치목적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 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전란(戰亂), 휴양, 능원(陵園)참배 등으로 지방에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 거처하는 곳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위급함을 피하고 국사(國事)를 계속 하기 위해 마련된 행궁으로는 강화행궁, 의주행궁, 남한산성 내의 광주부행궁 등이 있고, 온양행궁은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궁으로 조선 세종 이래 역대 왕이 즐겨 찾던 곳이다.

그리고 왕이 지방의 능원(陵園)에 참배할 때 머물던 행궁이 바로 화성행궁이라 할 수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이장하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축조했으며 1790년에서 1795년(정조 14~19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주요 경유지에 과천행궁, 안양행궁, 사근참행궁, 시흥행궁, 안산행궁, 화성행궁 등을 설치하였다. 그 중에서도 화성행궁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뽑히는 대표적인 행궁이라 할 수 있다.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화성부 유수(留守)가 집무하는 내아(內衙)로도 활용하였다.

정조는 1789년 10월에 이루어진 현릉원 천봉 이후 이듬해 2월부터 1800년(정조 24년) 1월까지 11년간 12차에 걸친 능행(陵幸)을 거행하였다. 이때마다 정조는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조가 승하한 뒤 순조(純祖) 1년(1801) 행궁 옆에 화령전(華寧殿)을 건립하여 정조의 진영(眞影)을 봉안 하였고 그 뒤 순조, 헌종, 고종 등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다.

화성행궁은 성곽과 더불어 단순한 건축 조형물이 아니라, 개혁적인 계몽군주 정조가 지향하던 왕권강화정책의 상징물로 정치적, 군사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시대상황

조선의 문화전성기인 18세기는 진경시대로 규정되는 바, 탕평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왕권이 국가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숙종 대가 그 문화의 토대를 놓은 시기라면 영조 대는 그 문화의 전성기로서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문물제도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정 보완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하에 조선후기 사회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정리하는 시기였다.

정조대는 조선문화의 완숙함에 부수되는 퇴폐적 분위기와 함께 사회전반에 이완 현상을 동반하고 있었다. 성리학적 이념에 의한 유교적 공동체사회가 농경사회의 물적 기반에 의존하였다면, 상공업사회로 이행하고 있던 정조대 조선사회는 그에 조응하는 변화논리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조선문화 절정기였던 영조후반기에 태어나 그 문화의 정수가 건재하던 시기에 이를 체득한 군주로서 자신의 통치기에 체제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장각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새로운 시대사상으로 부상한 북학사상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는 전시대에 이룩한 문화 중심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는 한편, 새로운 문명을 일구어 내고 있던 청나라의 문물을 도입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가 탁월한 추진력을 갖추고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동인은 당대의 어느 학자와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의 문치주의는 이 시대에 와서 활짝 꽃피면서 인문적 소양과 학문적 능력을 갖추지 않고는 제왕으로서 자격미달자로 낙인찍혀 신하들을 설득할 수도 없거니와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지적 풍토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임금이면서 스승인 '군사(君師)'로 자부하면서 신하들을 독려하고 모범을 보여 교화를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에 전력투구하였다. 국가최고통치자로서 사회체제를 지켜야하는 보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새 시대에 맞는 지배논리를 창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치현실에서 하나하나 풀어갔던 것이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비명에 죽은 후 세손으로 책봉되어서도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리며 새벽닭이 울 때까지 독서를 통하여 자신을 지키고 학문을 연마하였다. 즉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써 독서를 택했고 그 결과 방대한 문집을 남겼을 만큼 학자군주로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조의 휘는 산,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 영조의 손자요, 장헌세자(莊獻世子: 사도세자)의 아들로써 어머니는 혜빈(惠嬪: 혜경궁) 홍씨이다. 11세 때 장헌세자가 참화를 당한 뒤 왕세손으로 동궁에 책봉되고, 영조51년(1775년)부터 대리청정하다가 다음해 영조의 뒤를 이어 진종(眞宗: 효장세자로 요절함)의 후사로 즉위하였다. 24년 간 왕위에 재임하다가 1800년에 49세로 승하하였다.

♣ 사도세자의 죽음

때는 조선 후기 문화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영조 때, 영조는 무수리 집안의 딸이며 숙종의 후궁인 이씨의 몸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천한 신분에서 태어나 열등의식과 흑시나 세자에서 폐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영조는 남모를 편벽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색당파의 회오리 속에서 힘들게 왕으로 등극하였고, 항상 모반과 반역의 당쟁 속에서 그 자신 또한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영조와 중전 서씨(徐氏) 사이에서는 아들을 두지 못하였고, 정빈(靖嬪)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진종(眞宗)을 왕세자로 책봉하였으나 향년 10세에 죽었다. 그 뒤를 이어 영빈(英嬪)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가 바로 사도세자이다.

영조는 그 후 김한국의 딸인 15세의 김씨를 중전으로 맞아 81세의 천수를 누리면서 신하와 백성들에게 인군(仁君)·현군(賢君)으로 칭송되었으나, 사도세자와는 친하지 못하였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영민하였으나, 그 성격이 괴팍하여 여러 일로 영조의 성미를 건드리며 눈 밖에 났는데, 무수히 많은 일화가 전한다.

어느 날 세자는 궁궐 정원에서 호미로 개미집을 부수고 일일이 손으로 개미를 잡아 죽였는데, 이를 본 대신들은 '세자는 모름지기 어질어서 마땅히 하찮은 미물이라도 귀중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성격이 괴팍하고 모지니 장차 왕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하였다.

한번은 영조가 매우 귀여워하는 외국의 개가 있었는데, 세자가 그 개를 못살게 굴자 그 개는 세자를 보고 짖으며 물려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세자는 감히 왕세자인 자기를 몰라본다고 그 개를 즉석에서 칼로 베어 죽였다. 이 사실이 영조

에게 알려지자 영조는 극도로 화를 낸은 물론 세자의 자질을 의심하였다.

그 이외에 세자가 대행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루는 영조가 사랑하는 숙의 문씨가 남동생인 문성국을 병조 참의로 등용하여 줄 것을 왕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영조는 대행 왕인 세자에게 검토를 부탁하였으나, 세자는 이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을 거절하여 왕의 노여움과 더불어 숙의 문씨의 미움을 샀다.

이 일로 대리청정에서 물러난 세자는 그 후로 더욱 분별을 잃고 고집스러워졌는데, 세자의 의대공포증(衣帶恐怖症)은 유명하였다. 이 증세는 한 번 입을 옷은 벗지 않고 계속 입으려 하는 일종의 정신병으로, 빨래와 왕의 알현을 위하여 반드시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하는데 세자는 고집을 부리며 벗으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어느 궁녀가 세자의 옷을 갈아 입히려다 세자가 밀어 짓히는 바람에 벽에 부딪쳐 죽은 일까지 있었다. 계속되는 꾸지람에 세자는 급기야 그 돌과구로 밤을 틈 타 몰래 담을 넘어 여승들과 동침하는 미행(微行)을 서슴지 않았으며, 평양까지 가서 기생과 술로 소일하고 왔다.

이 때는 당파 싸움으로 조정이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나경언(羅景彦)의 상소로 세자의 미행이 날날이 밝혀지자 영조는 세자의 미행을 추궁하였고, 이 책임을 짊어진 영의정 이천보(李天輔), 우의정 민백상(閔百祥), 좌의정 이후(李후) 등이 연이어 자살을 하였다. 계속되는 세자의 파행과 남동생의 등용에 불만을 품은 숙의 문씨의 이간질로 영조는 더 이상의 자제심을 잃고 햇별이 내려 쬐는 여름날 세자를 문초한 뒤, 뒤주에 가두고 밖에서 못을 박아 7일 만에 죽게 하였으니, 그 때 세자의 나이는 28세였다.

이것이 전대미문의 극형으로 전해지는 사도세자의 죽음이며, 이 현장에는 11살 된 아들(뒤의 정조)이 할아버지인 영조의 옷을 부여잡고,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애걸하였으나, 영조는 끝끝내 손자의 애원을 무시하였다.

♣ 화성행궁의 풍수적 입지

한남정맥의 중조산인 광고산과 백운산의 계곡에서 발원한 물은 남진하여서 광고저수지에 모이고, 이 물은 다시 수원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수원천으로 남진해 서해로 흘러든다. 수원성의 서쪽에 팔달산이 있고, 반대쪽인 동쪽에는 나지막한 구릉이 있고, 수원천 가로 약간의 평지가 펼쳐져있다.

화성행궁이 자리한 팔달산은 백운산을 떠난 정맥이 지지대 고개로 뻗어가는 도중 한 기맥은 남진시키고, 이 기맥은 남동진하며 광교저수지 서쪽으로 바짝 붙어 뻗고, 이 후 몸을 남서진을 바꾸어 영화동의 장안문에서 성곽을 따라 팔달산으로 이어졌다.



수원천 동쪽의 지맥은 한남정맥의 버들고개를 지난 정맥이 광교산으로 뻗어가는 도중, 한 기맥을 남진시키고, 이 기맥은 광교터널 위를 지나 경기대학교의 앞산을 거쳐 수원천을 따라 남서진한다. 따라서 팔달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화성행궁의 터는 속리산이 태조산이고, 칠현산이 중조산이고, 광교산이 소조산이며, 팔달산이 주산이다.

하지만 화성행궁은 팔달산의 급사면과 완사면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용맥이 짧아지기는 왕성치는 못하나 물이 쫓方에서 득수하여 수구가 巳方이고, 이 때 내용은 평지룡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庚酉龍으로 지질은 단단하면서도 생기를 품을 만한 흙이다.

이때 화성행궁의 좌향을 庚坐甲向으로 놓으면, 향상으로 木局의 冠帶水가 病方을 충과함으로 신동이 태어나도 단명하고 과속하는데,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를 보면, 행궁은 정문인 신평루에서 정당인 봉수당까지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신평루·좌선문·중앙문·봉수당으로 연결되고, 몇 개의 회랑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거치는데, 동향인 庚坐甲向을 놓은 것을 판단된다. 하지만 이곳은 水局의 墓向은 戌坐辰向을 놓아야 대부대귀하고 발복한 땅이 된다.

♣ 화성행궁 시설물 소개



• 신평루

신평루는 화성 행궁의 정문으로 1790(정조 14)에 누문 6칸을 세우고 진남루(鎭南樓)라고 하였다. 1795년 정조는 신평루로 고치라고 명하여 조윤형으로 하여금 다시 편액을 쓰게 하였다. '신평'이란

이름은 일찍이 한나라 고조가 '풍 땅은 새 로운 또 하나의 고향' 이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조에게 있어 화성은 고향과 같은 고장이라는 의미로 편액을 걸게 한 것이다. 1795년 을묘행차시에 신평루 앞에서는 정조가 친히 참석하여 화성부의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굶주린 백성에게는 죽을 끓여 먹이는 진휼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 좌익문



좌익문은 중앙문 앞에 있는데, '좌익은 곧 곁에서 돕는다'는 뜻으로 내삼문을 바로 앞에서 도와 행궁을 지키는 중삼문(中三門)이다. 1790년 완성되었고 편액은 정동준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썼다. 남쪽 행각의 끝은 외정리소와 연결되어 있다.

• 중앙문



중앙문은 궁궐 건축의 삼문 설치 형식에 따라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을 바로 앞에서 가로막아 굳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내삼문(內三門)이다. 1790년(정조 14)에 완성되었으며, 중앙의 정문과 좌우의 우협문, 좌협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 좌우로 긴 행각을 두어 출입을 통제 하였다.

1795년 봉수당 진찬례 때 봉수당 앞으로는 정조와 혜경궁을 비롯한 왕실의 종친과 대신들이 자리 하였고, 중앙문 밖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 승지와 사관, 각신이 반열을 이루었던 바 있다.

• 봉수당



봉수당은 화성 행궁의 정전(正殿)건물이자 화성 유수부의 동헌 건물로 장남헌(壯南軒)이라고도 한다. 1795년(정조 19) 정조는 혜경궁의 회갑연 진찬례를 이 건물에서 거행 하였다.

이 때 정조는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며 '만년(萬年)의 수(壽)를 받들어 빈다'는 뜻의 봉수당이

라는 당호를 지어 조운형으로 하여금 현판을 쓰게 하였다.

이 건물은 원래 1789년(정조 13)8월 19일 상량하고 9월 25일 완공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파괴된 봉수당은 1997년 복원 되었다.

정조는 혜경궁 회갑연을 마치고 9년뒤인 1804년에 혜경궁의 70수연(壽宴) 진찬을 봉수당에서 갖겠으니 사용할 물건을 잘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진찬례 행사는 조선시대 최대의 궁중행사로 당시의 커다란 화제거리였으며, 왕실의 종친과 신하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였다.

• 미로한정



미로한정은 행궁 후원(後苑)에 만든 정자이다. 후원 서쪽 담안에 있었는데 미로한정이라는 말은 '장래 늙어서 한가하게 쉴 정자'라는 뜻이다.

노래당과 함께 갑자년(1804)에 세자에게 양위(讓位)하고 화성으로 가리라던 정조의 뜻이 담긴 이름이었다. 1790년(정조 14)에 세워 졌는데 1칸 6각

정으로 '육면정(六面停)'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는 수원 추팔경의 하나인 한정품국(閒亭品菊 : 국화꽃 벌여놓고 황상하는 미로한정의 가을 풍경)의 경관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 남군영



남군영은 장용외영의 기마병이었던 친군위(親軍衛)가 좌,우열로 각 100명씩 입직숙위하는 건물이다.

신평루 좌우에 있는데 1789년(정조 13)에 처음 지었고, 1794년(정조 18) 좌우에 익량을 증축하여 모두 62칸의 규모를 갖추었다.

1798년(정조 22) 장용외영 군영의 일대 개편에 따라 좌, 우열은 파하고 1,2,3번의 입번 순서를 정하여 매년 각 100명씩 양 군영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 서리청

서리는 문서의 기록 및 수령, 발급을 담당하는 아전으로서 서리청은 그들이 사



용하는 건물이다. 비장청 앞에 위치했으며 남향이
다.

예전의 금도청(禁盜廳) 건물을 이청으로 쓰게 하
고, 그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였으며 1795년 을
묘원행시에는 수라칸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비장청



비장은 관찰사나 절도사등 지방관이 데리고 다니
던 막료로 조선 후기에는 방어사를 겸한 수령까지
모두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관례화하여 민정 염탐
을 시키기도 하였다.

비장청은 화성 유수부의 비장들이 사용하던 건물
로 외정리도 앞에 있는 남향 건물이다.

원래는 1789년(정조 13)에 세웠는데 1796년(정조 20)에 서리청 건물을 수리하고
비장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 외정리소



정리소는 장차 1795년 을묘원행에서 펼쳐질 각
종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1794년 12월에 설치한
임시 기관이었는데, 화성 성역이 끝난 후 외정리
소라 하여 정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의 행차할 때
화성 행궁에서의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관청이
되었다.

처음에 정리소는 장용내영에 설치하였는데, 1796년(정조 20) 화성 행궁이 완성
되면서 유여택 앞에 외정리소를 세우고 '외정리아문(外整理衙門)'이란 편액을 달
았다.

외정리사는 호조판서가 겸임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화성의 경우는 화성 유수가
겸직 하였다.

• 유여택



유여택은 평상시에 화성유수가 거쳐하다가 정조가 행차시에 잠시 머무르며 신하를 접견하는 건물이었다. 유여택은 복내당 동쪽 행각과 외정리소 사이에 있다.

유여택이라는 이름은 『시경』 중에서 주나라 천명을 받아 나라를 크게 하고 집을 주었다는 데서 따온 것으로 정조의 입장에서는 화성 유수를 임명하여 내려보내는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원래 유여택은 1790년(정조 14)에 건립하고 은약헌(隱若軒)이라 하였다가, 1796년(정조 20)에 증축하면서 유여택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건물은 동향으로 왼쪽에 공신루(供宸樓) 1칸을 덧붙여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다. 1795년 행차시에 정조는 유여택에서 각종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교를 내렸다.

• 경룡관



경룡관은 장락당의 바깥문으로도 사용한 부속 건물이다. '경룡'이란 제왕을 상징하는 큰 용을 뜻하는 것으로 당태종이 거쳐한 궁궐 이름에서 따왔다.

정조는 당태종의 궁궐 이름을 차용한 이 건물에서 휴식을 취하며 조선의 태평성세를 구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794년(정조 18)에 세워진 경룡관을 2층 구조로 건물의 2층은 모두 마루를 깔아 누마루를 만들고, 아래층은 3칸의 널문을 만들어 '지락문(至樂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 장락당

장락당은 1795년 을묘원행중 혜경궁의 침전으로서 1794년(정조 18) 화성 성역중에 완성되었으며, 봉수당 남쪽에 있는데 봉수당의 서남쪽 지붕과 겹쳐 있으며, 동향으로 세워졌다.

장락당은 전한의 도읍인 장안성의 궁전이었던 장락궁에서 이름을 따 왔다.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던 정조는 한나라 태후의 거처였던 장락궁의 이름을 따 행궁의 내전인 장락당의 편액을 직접 써서 걸었다.

실제로 1795(정조 19) 을묘원행시에 혜경궁은 이곳에서 머물렀는데, 정민시가 지은 상량문에서는 '빛나는 궁궐이 처음 이루어지는 때를 당하여 다행히 태후께서 먼저 납시는 것을 보았네'. 라고 하였다.

• 북내당



북내당은 행궁의 내당(內堂)으로 정조가 행차시에 머물렀던 곳이며 장락당 남쪽에 위치하였다.

상량문은 1796년(정조 20) 11월 민중현이 지었다.

북내당의 이름은 '복은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원래 북내당은 1790년(정조 14)에 수원부 신읍치소의 내아(內衙)로 건립하였고, 1794년(정조 13)에 세웠다. 좌우 두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 북군영



북군영은 장용외영의 기마병이었던 친군위(親軍衛)가 좌,우열로 각 100명씩 입직숙위하는 건물이다.

신평루 좌우에 있는데 1789년(정조 13)에 처음 지었고, 1794년(정조 18) 좌우에 익량을 증축하여 모두 62칸의 규모를 갖추었다.

1798년(정조 22) 장용외영 군영의 일대 개편에 따라 좌, 우열은 파하고 1,2,3번의 입번 순서를 정하여 매년 각 100명씩 양 군영에 나누어 배치 하였다.

• 집사청

집사는 주인을 모시고 그 살림을 맡아하는 사람들로써 행궁의 집사청은 궁궐의



액정서(국왕이 쓰는 붓과 먹, 벼루 등을 보관하며 대궐안의 열쇠를 간수하고 여러가지 설비, 비품을 관리하는 관청)와 같이 잡다한 사무를 보던 집사들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죄익문 밖 동북 담 안에 있는데 1789년(정조 13)에 세웠다. 좌우 두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 낙남헌



낙남헌은 일제강점기에 화성행궁이 철거될 당시 훼손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축물중 하나다.

낙남헌이란 이름은 후한의 광무제가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궁궐 이름을 '남궁(南宮)'이라 한 것에서 따온 것으로 1794년(정조 18)에 관공되었다.

1795년(정조 19)을묘원행시에는 각종 행사가 이 곳 낙남헌에서 치러졌다.

정조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념하여 군사들의 회식을 이 곳에서 하였으며, 특별과거시험을 치러 문과 5명과 무과 56명을 선발 하였는데 급제자에게 합격증을 내려 주는 행사도 이 곳에서 있었다. 또한 정조는 혜경궁의 회갑연을 기념한 양로연을 시행 하였다.

• 득중정



득중정은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로 편액을 정조가 직접 써서 걸었고, 상량문은 홍양호가 짓고 썼다.

정조는 행차시에 매번 활쏘기를 하였는데, 1790년(정조 14)에 새로 만들어진 이 정자에서 활을 4발 쏘아 4발 모두 맞고는 이를 기념하여 '득중정'이

라고 한 것이다.

득중정은 "활을 쏘아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射中 則得爲諸侯 射不中 則不得爲諸侯)" 라고 한 구절에서 '득'자와 '중'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무형문화재전수관

• 무형문화재

① 승무·살풀이춤

지정번호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지정일자	1991년 10월 19일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7-1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기능보유자	김복련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와살풀이춤은 화성재인 청류의 춤으로서 1991년 정경과선생이 최초 지정되어 현재 김복련선생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승무는 전해져 오는 설화에 철저히 의존한 춤으로 염불, 도드리, 타령, 잣은타령, 굿거리, 북놀이과정이 끝난 후 장삼과 고깔, 가사를 벗어 북에 걸어 해탈의 경지를 표현하는데 이는 다른 류의 승무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적인 춤사위이다.

살풀이춤은 흰색 치마저고리에 허리를 묶고 수건 두 개를 들고 추며 수건 두개로 그려지는 태극무늬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한과 슬픔을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며 공간상의 유선이 훨씬 다양하여 선이 그려지는 형태는 하나의 소박한 화폭과 같은 독특한 춤사위로 이루어져 있다.

② 단청장

지정번호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8호
지정일자	1999년 10월 18일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7-1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기능보유자	김종욱



단청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하여 궁궐, 사찰, 사원등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단청장(丹青匠), 화사(畫師), 화원(畫員), 화공(畫工), 가칠장(假漆匠), 도채장(塗彩匠) 등으로 부른다. 승려인 경우에는 화승(畫僧), 불화에 숙달된 승려는 금어(金魚), 단순한단청장은 어장(魚杖)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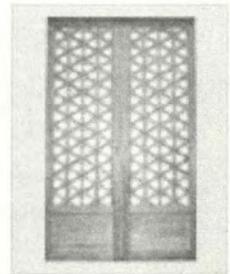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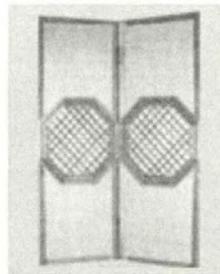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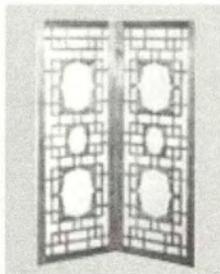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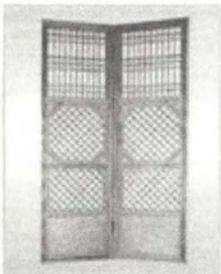
우리나라 단청은 삼국시대의 고분 등에서 기원을 살필 수 있고 불교의 수용과 함께 더욱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단청을 하는 과정은 먼저 단청을 올릴 바탕을 닦은 후, 아교를 넣고 묽게 끓인 물을 바르고 거기에 가칠을 다섯 번 반복하여 초지를 마련한다. 초지 무늬를 건물에 올리기 위해서 전체 면에 청녹색 흙을 바르는 청토바르기를 한다.

그리고 도본(圖本)을 해당 면에 대고 분주머니를 두드리면 본의 무늬에 있는 송곳구멍으로 가루가 나와 바탕에 무늬가 박히게 된다. 이렇게 타분작업(打粉作業)이 끝나면 그 본에 따라 광물성 안료로 청, 적, 황, 백, 흑의 오색을 입히는데 각기 맡은 색만 찾아 그려 칸을 메워 단청을 끝내게 된다. 단청은 목재의 보존과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표면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건물의 위엄과 신성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 많이 이용된다. 단청은 불교나 유교가 성행했던 한국, 중국, 일본에서 유행했으나 오늘날까지 단청문화의 전통이 계승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③ 소목장

지정번호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지정일자	1995년 8월 7일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45
기능보유자	김순기

목재를 다루는 장인 목수(木手)에는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가옥을 짓는 건축과 관계된 일을 하는 대목장(大木匠)과 장과 농, 문갑, 탁자, 소반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가구들과 그 밖의 목공예품을 만드는 소목장이 있다. 현재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순기는 전통 창호(窓戶)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소목장(小木匠)이다. 김씨가 제작하는 창호는 문양별로 완자창, 세살문, 빗살문, 꽃살문 등이다. 완자창에는 아자(亞子)완자창과 칠살 완자창이 있으며, 고궁의 창살은 모두 이 문양들로 만든다. 칠살 완자창은 끝구멍 완자창이라고도 한다. 세살문과 빗살문은 각각 그 모양이 앞과 뒤가 같은 배밀이형인가 아니면 앞은 원형이고 뒤가 네모형인 투밀이형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꽃살문은 연꽃형, 원형, 육각형, 나뭇잎형 등이 있다. 나무는 가래나무과인 추목, 또는 춘향목이 으뜸이나 구하기 힘들 때는 적송, 육송 등을 주로 강원도나 경북 산간 등지에서 구입한다. 이를 3년간 묵히면서 나무의 결을 죽인다. 나무가 마르면 이것으로 각목을 켜서 각 살을 망치로 다진다. 이렇게 하면 나무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살을 엇갈리게 물린 후에도 이음부분에 틈새가 생기지 않는다. 잘 다진 나무를 썰어 사개물림과 엇갈리게 물리는 방법으로 문살을 만든다음 풀로 붙이고 끝을 이용하여 가로와 세로로 구멍을 뚫어 축을 만든 후 쇠기를 박아 마감한다. 못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수원 화성

• 수원화성의 역사적 의의

① 실학의 도시 수원 화성

새수원은 출발부터 실학과 연결된다. 반계 유형원의 실학 사상이 새수원의 길을 열었고,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여러 실학자들이 축성에 이바지하였다.

더구나 시대적인 흐름은 실학 정신을 현실에 투입하지 않고는 안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 문명이 청나라를 통해 조선에 들어왔다. 또한 상업과 농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 구조의 재편성은, 그때까지 조선을 이끌어왔던 성리학을 지극히 공리공담적인 구학으로 여기게까지 되었다.

정조는 아마 수원화성을 조선 실학의 실습장으로 쓰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의 통치 전반에 활용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다. 더구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부류의 반대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걸림돌이다. 또 기득권층의 저항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 모두를 피해가면서 현실에 적응시키는 방법으로도 수원화성을 건설했을 것이다.

기계나 기구의 개발과 활용은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경비를 절감하면서 공역 기간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② 백성을 위한 수원화성

수원화성에는 국왕의 애민정신이 가득 담겨 있다. 설계를 변경해가면서까지 주민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공역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점, 그리고 척서단, 제중단 등의 환약을 내려주고, 무더위와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의 일시 중지 등은 애민정신의 소산이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 새수원의 건설 계획에는 성의 축조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가 수원이 화성유수부로 승격되고 성을 쌓으려고 보니 많은 민가들이 성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축성의 책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을 때, 정조는 성을 세 번 구부렸다 폈다 해서라도 모두 수용하라는 비답을 내린다.

성을 확장한다는 것은 국고의 손실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국고의 손실보다 수원 주민을 우선했다는 말이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 정조는 화성 성역에 참여하고 있는 공역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척서단을 지어 하사한다. 더위 먹은 데 먹는 환약을 특별히 지어 내려준 것이다. 약을 지급 받은 사람들은 약의 효능보다 국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감동은 곧 최고의 성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서정대성조도

③ 수원화성 시설의 특징



적대의 면안

수원화성은 기존 성들이 안고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건설된다. 동서남북 사대문을 건설하면서 모두 용성을 설치하였고, 적재적소에 치성을 두었으며, 여장의 높이를 높여 군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는 서애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밝힌 조선 성들의 취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요소요소에 암문을 설치하여 비상 사태에 대비하였고, 남북 수문을 두었는가 하면, 군사적인 위엄을 담은 장대를 동서에 건설했다

치성(雉城)의 제도는 참으로 중요하다. 치성은 성벽을 중간중간 돌출시켜 쌓은 것을 말하는데 꿩이 제 몸은 감추고 남을 잘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러한 치성이 없거나 적당한 장소에 있지 않으면 적군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파괴하기 쉽다. 과거의 성들에도 치성이 있지만 그 활용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수원화성에 건설된 치성들은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순수하게 치성의 역할만으로 건설되기도 하고, 대포를 장치하는 포루(砲樓)를 겸하거나, 치성 위에 집을 지어 군사를 보호하려고 한 포루(鋪樓)도 있다.

성의 동남쪽, 서남쪽, 서북쪽, 동북쪽에는 모두 각루(角樓)를 두었다. 이는 수원화성의 다섯 군영 체제를 보완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화성행궁에 중영(中營)(신평위;新風衛)을 두고 동에는 창룡위(蒼龍衛), 서에는 화서위(華西衛), 남에는 팔달위(八達衛), 북에는 장안위(長安衛)를 두었는데, 중간의 요소에 네 각루를 두어 각 위(衛)를 보충해주는 동시에 부장(副將)이 지휘하는 지휘소의 역할도 한다. 각 각루의 위치는 빼어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휴식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컸다고 보여진다.

그 중 제일은 동북각루인데 용두각으로 불리기도 하는 방화수류정이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정자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다고 할만한 정자인데 동북각루라는 집 이름이 말해주듯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세워진 시설이다. 적군이 방화수류정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이 빠져 있을 때, 마루 밑의 총구와 포구에서는 사정없이 불을 뿜을 것이다.

수원화성 봉돈(烽墩)은 단순한 봉수대의 역할을 뛰어넘은 요새다. 우선 봉돈 자체가 하나의 치성으로 쓰이며, 많은 총구를 뚫어 자체 방어력을 갖추었으며, 화성행궁과 서장대를 마주보며 국경과 해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화성의 건설에서 벽돌의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학과 실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벽돌집의 제도를 조선에 이식시키는 과정이 수원화성에 담겨 있다. 성의 중요 시설물은 대개 벽돌을 활용하였고, 건축물의 일부분도 벽돌로 쌓았다. 그래서 수원화성을 축성 재료로 분류할 때 다른 곳에는 없는 석전교축(石塼交築)의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수원화성의 평면은 나뭇잎을 닮았다. 땅의 생김새에 따라 순응하며 성을 쌓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조의 애민정신에 의한 성의 확장으로 인해 더욱 완벽하게 나뭇잎을 닮았다.

수원화성은 여러 기능들을 한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다기능을 강조하면 외형을 놓치게 되고, 외형을 강조하다 보면 기능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이 배반적인 요소 둘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은 문화적인 능력이 탁월했을 때 가능하고, 탁월한 문화적 능력은 튼튼한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수원화성은 이렇듯 조선의 정점에서 건설된 것이다.

④ 공사실명제 구현



장동문 '실명제의 근거'

수원화성의 건설은 완벽한 실명제로 완성된다. 성역의 처음과 끝을 모두 기록한 공사보고서를 펴낸 것이다.

국가의 재정이 많이 들어갔고 백성의 피땀 어린 정성이 훌륭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보고서의 간행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수원화성의 성역이 한창 진행되던 정조19년(1795) 윤 2월에 수원에서는 커다란 잔치가 열렸다.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가 열렸던 것이다. 수원화성에 대한 정조의 애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 이 잔치의 모든 것을 책으로 펴냈는데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라는 책이다.

이 책의 간행에 앞서 정조는 국가의 모든 행사를 낱낱이 정리해 놓을 요량으로 정리의궤청을 설치하였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간행은 화성성역 공사보고서의 간행에 본보기가 되었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라고 제목을 단 이 책에는 공사의 논의 과정과 관청 사이에 주고 받은 공문서, 임금의 의견과 명령 등 진행 과정을 기록했고, 공사 참여자의 이름과 공역 일수, 각 시설물의 위치와 모습 및 비용들을 낱낱이 실었다.

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돕기도 했다. 공사비에 대한 대목에서는 각 공역에 들어간 경비를 산출하였고, 인건비(일당)와 공사에 참여한 일수 등도 상세하게 기록해서 석공 아무개가 어느 고장의 출신이며, 어느 현장에서 몇 일을 일했으며 얼마의 돈을 품값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했다.

어느 시설물이든지 건축 자재를 하나하나 기록했고, 그 비용을 산출했으며 성안팎에서 본 그림을 따로 그려 이해를 도왔는데 부득이한 경우엔 실내의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다.

거중기(舉重機)와 같은 기계들은 부품까지 따로 그려서 설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이 공사보고서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반증인 것이다.

지난 70년대 수원화성은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해오고 있다. 그럴 때마다 화성성역의궤가 교과서로 등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수원화성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데에도 화성성역의궤

는 한몫을 톡톡히 했다. 200여년 전의 완벽한 공사보고서에 세계가 놀란 것이다. 화성성역의례에 들어 있는 실명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그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창룡문과 화서문, 그리고 팔달문에서 실명판을 볼 수 있는데 화서문 것은 마모가 심해서 눈을 씻고 들여다 봐야 볼 수 있지만, 창룡문과 팔달문의 실명판은 선명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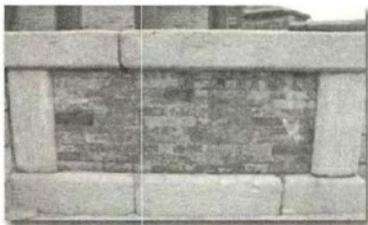
그중에서 팔달문 것은 마치 어제 새긴 듯 글씨가 살아 있다. 최근에 일어난 부실 공사들과 비교해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자신이 없으면 기록을 제대로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수원화성의 건설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곧, 정조를 비롯한 당시 정치가들의 자신감 있는 국정 수행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그 당당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는 당연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⑤ 성역관리와 공사경영



성벽의 이음새



월대의 외강석 기둥

수원화성의 건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관리와 경영의 능력이다.

오백 칸이 넘는 화성행궁을 건설하면서

십리에 이르는 성을 축조했다는 것은, 더구나 28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국왕의 명령이 아무리 지엄하다 해도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당대의 기술력과 관리, 경영 능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금전 관리를 엄격히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당으로 인건비를 주는 경우와 일의 성과에 의해 돈을 주는 성과급제를 병행하였다. 혹시라도 빈틈으로 경비가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고 작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개인의 욕심이 배제된 경영과 관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취급된다. 또 개인의 욕심이 끼어 들 틈이 보이는 것은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깨끗한 경영과 엄격한 관리로 쌓았기 때문에 수원화성은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이다.

⑥ 성곽의 꽃, 조선의 꽃

수원화성은 조선의 절정기에 탄생한다. 그 시작은 비운에 죽은 사도세자의 묘원을 옮기는 것으로 비롯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발전, 심화, 절정, 쇠퇴라는 곡선을 그리면서 역사는 흐른다. 수원화성의 건설 이후로 보이는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쇠퇴는, 거꾸로 수원화성을 극점에 올려놓는 모순을 낳고 말았다.

그래서 수원화성은 조선의 꽃이요, 우리나라 성곽의 꽃이다. 그러나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그윽해도 제대로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시들거나 죽어버린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래서 자명해진다. 이 아름다운 수원화성을 어떻게 가꾸고 지킬 것인가. 수원화성에 서려 있는 소중한 정신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교훈으로 만들 것인가.

수원화성을 건설한 사람들도 훌륭했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가꾼 오늘날의 우리들도 훌륭했다고, 이백년 후의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 동장대(연무대)



• 동암문

동암문은 동장대 서쪽 166보 되는 곳에 있다. 동쪽에 자리잡고 북쪽을 향하여 있으며 벽돌로 안과 밖의 홍예를 만들어 말 한필이 지나갈 수 있다.

안쪽 너비는 7척 높이는 8척이고 바깥은 너비가 6척, 높이가 7척 5촌이다. 문 위는 벽돌을 깔았고 누는 세우지 않았다. 다만 오성지와 한 개의 큰 둥근 여장

을 설치하였는데 마치 나무로 만든 전봉(戰棚)의 제도와 같다. 좌우는 각각 비예를 갖추었고 안쪽은 평평한 여장을 설치하였다. 나머지는 남암문과 같다.



• 동북포루



동북포루(東北鋪樓)는 각건대(角巾臺)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방화수류정 동쪽 135보 4척쯤 되는 거리에 있다. 지세가 별안간 높아져서 용두(龍頭)를 눌러 굽어보고 있다.

『성서(城書)』에 이르기를, "치성의 위에 지은 집을 포(鋪)라 한다"고 하였다. 치성에 있는 군사

들을 가려 보호하려는 것이다.

치성이 성 밖으로 18척 5촌이 튀어 나왔는데, 외면의 너비는 24척이고, 현안(懸眼) 1구멍을 뚫었다. 5량으로 집을 지었는데, 판자를 깔아 누를 만들었다. 7영(七楹) 3간이고, 높이는 여장 위로 6척 8촌이 솟았는데, 전체 높이는 13척이다.

여장의 3면은 모두 벽돌을 사용하였고, 여장 안은 벽등(壁燈)을 이중으로 쌓았는데, 아래 위에 네모난 총안 구멍 19개[사방 각 9촌], 누혈(漏穴) 11개[사방 각 4촌]을 뚫어 놓았다.

누의 위 4면에는 판문을 설치하고 외면과 좌우에는 사안(射眼)을 내어 놓았다. 내면에 벽돌 층계를 설치하여 오르내리게 하였다. 단청은 3토를 사용하였고, 들보 위는 회를 발랐다.

• 북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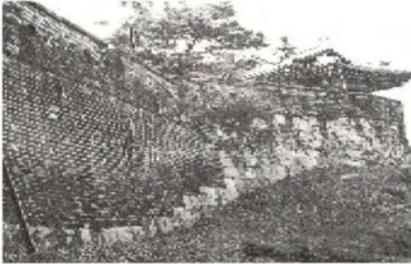
북암문은 동북각루의 동쪽 40보 되는 벽돌로 쌓은 성 사이에 있다. 안과 밖의 홍예 역시 벽돌로 쌓았다. 안쪽은 너비가 4척 6촌 높이가 6척 5촌이고, 바깥 쪽은 너비가 4척 높이가 6척이다.

문 위에는 둥근 여장을 설치했는데 제도는 동암문과 같다. 홍예 사이에는 돌계단을 설치하여 들어가는 곳은 높고 나



오는 곳은 낮게 만들었는데, 지세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 동북각루(방화수류정)



동북각루는 벽성의 서북 19보 용연(龍淵)의 위에 있다. 광교산의 한 쪽 기슭이 남으로 번어 내려 선암산이 되었고, 다시 서쪽으로 감돌아 몇리를 내려가 용두(龍頭)에서 그치고서 북쪽을 향하여 활짝 열렸다. 용두란 것은 용연의 위에 불쑥 솟은 바위이다.

성이 이곳에 이르면 산과 들이 만나게 되고 물이 돌아서 아래로 흘러 대천에 이르게 되니, 여기야말로 실지로 동북 모퉁이의 요해처이다.

장안문을 잡아 당겨 화홍문과 이어지게 함으로써 앞뒤로 서로 마주 응하여 1면을 제압하고 있다. 그리고 절벽을 따라 성을 쌓고 바위에 누를 세우니 편액은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라 하였다. [전 참판 조유흥(曹允亨) 씀]

동서로 세 간인데 가운데는 온돌을 놓았고 북쪽으로 한 간을 붙이고 남쪽은 반간(半間)을 물리었으며, 서쪽의 한 간은 또 길게 두 간을 늘리었다. 남쪽을 밖으로 물린 것은 마치 곡척(曲尺)처럼 생겨 있는데 평난간을 둘러쳤다. 그리고 위에 만(卍)자 쇠창(蓼)을 갖추었다. 온돌 4면에는 또 다시 만(卍)자 장자(障子)를 갖추었는데, 온돌의 면과 판자를 간 면은 서로 판판하게 만들었다.

남쪽 동쪽 북쪽의 3모퉁이에는 5변 꺾인 팔각(八角)으로 각각 종횡의 짧은 대들보를 얹었다. 지붕 용마루의 네모진 서까래가 들쭉날쭉하여 처마를 번쩍 들고 있으며 지붕 용마루에는 망새[鸞頭]를 교차시켜 꽃았는데, 한 가운데에 3마디 절병통(節瓶桶)이 까마득하게 솟아 있다.

동북쪽 평난간 밖에는 또 처마마다 판자를 깔아 성두(城頭)를 위압하고 있다. 2중으로 교란(交欄)을 설치하고 밖에는 전봉판문(戰棚板門) 16개를 설치하였는데, 만듬새는 마치 병풍을 포개어 친것 같다. 위에는 전안(箭眼) 각 1개씩을 내고, 아래에 총안 각 2개씩을 뚫었다.

단청은 5토를 사용하였으며, 대들보 위는 회를 발랐다. 내면에는 절지(折枝)를 그렸고, 정간(正間)의 조정(藻井)에는 연잎[荷葉]을 받쳤다.

동북 교란 아래의 성면 벽돌 높이 7척, 두께 4척 4촌, 위 아래에 총안 19개를 뚫고 널판지를 깔았다. 아래의 서남에도 벽돌을 돌려쌓아 담을 치고 담의 남쪽

에 벽돌 홍예의 작은 문을 내었다.

동쪽의 물림난간 아래에도 판문을 내고 숨었던 적병의 발사에 대비하여, 포루의 제도와 같이 하였다. 정간 남쪽 처마와 층계로 누대를 만들되 돌을 깎아서 가장자리를 둘렀다. 누대의 높이 4척, 남북의 길이 13척 4촌, 동서의 너비 16척 4촌이다. 위에 방전을 깔아 우사(射)와 읍양(揖讓)의 예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유지시켰다. 대 위의 서북에 각각 고란층계(高欄層梯)를 놓아 정자의 위로 통하게 하였다. 대 아래의 동남 양면에도 4층 보석(步石)을 설치하고 그 남쪽 11보의 거리에 낮은 담을 쌓고 전문(箭門)을 내었다. 용연(龍淵)은 북성 밖에 있는데, 모양이 반달 처럼 생겼다. 둘레가 210보, 깊이 6척이고, 가운데에 작은 섬이 있다.

못 위 성모퉁이에 방화수류정이 있고, 정자 아래에 있는 바위는 옛날부터 용머리라 하여 낚시터로 삼을 만하다. 못의 서쪽에 석각 이두(石刻頭)를 설치하였는데, 물이 많이 차면 이 이두로 물을 화홍문 밖으로 뺐어 내게 되어 있다.

• 화홍문



북수문은 편액에 화홍문[사인(士人) 유한지(兪漢芝)가 썼다]이라 되어 있다. 방화수류정의 서쪽 44보 되는 곳에 있다.

광고(光教) 언덕을 대천(大川)이 가로로 자르며 흐르고 있어, 여름 장마 때마다 범람하는 환난이 있었다.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할 때에 물길을 내는 일을 먼저 하였다. 넓혀서 소통을 시키고 7간의 홍예로 된 돌다리를 하천 위에 걸쳐서 설치하였다. 그 동서로 3간은 아래 너비가 8척 높이가 7척 8촌, 가운데 한 칸은 너비가 9척, 높이가 8척 3촌이다. 7개의 안팎 홍예 사이에는 각각 좌우에 돌기둥 4개를 세웠다. 홍예가 서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잠자리 무사를 붙였다. 중앙에는 장군형 무사를 덧붙였다. 거기에 다리 놓을 돌을 깔고 다리 위 바깥 쪽에는 장대석(長臺石)을 설치하였다.

아래의 전석에서부터 다리 밑까지 높이는 8척 7촌, 다리의 두께는 1척 9촌이다. 장대는 높이 1척이고 다리는 너비가 31척 길이 95척이다. 장대 위에는 누조(漏槽)[각각 너비 1척 깊이 5촌] 7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첩을 설치했으며, 타구는 설치하지 않았다. 높이는 5척 4촌 두께는 4척 8촌이고, 아래에는

방안 대포 구멍[사방 각 1척]을 뚫었다. 위에는 소포 구멍 14개[사방 각 7촌]를 뚫었다. 안쪽은 장대만을 두고 누혈(漏穴) 6개를 뚫었다.

동서 양끝에는 8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무기를 새겼다. 서쪽 기둥의 북쪽과 동쪽 기둥의 동쪽에는 짧은 담을 쌓고 전판문(箭板門)을 설치하여 동쪽 성의 길과 통하게 하였다. 다리 위 북쪽 편에 누각 6간을 지었는데, 동서로 가로 너비가 3간이고 남북으로 세로 길이가 2간이다. 모두 널빤지를 깔았는데 첩의 위로 높이 솟아나오게 하여 사면에 분합을 달고 동서남 삼면에는 연잎을 새긴 난간을 붙였다. 난간 아래에는 벽돌을 둘러서 담장을 만들고 남쪽 한 가운데 1간을 비워서 들고 나는데 편하게 하였다.

방사(放射)하는 제도는 포루와 같다. 다리 위에서 널판지 간 데까지 높이가 6척 2촌이다. 북쪽 분합 밖으로 물려간 널위에는 전봉(戰棚)을 설치하였고 판문 아래에는 벽돌로 된 첩과 이어지게 하였는데, 바깥 쪽에 짐승의 얼굴을 그리고 전총안(箭銃眼)을 뚫었다. 단화는 녹색을 바탕으로 하고 진채(眞彩)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들보 위에는 회를 발랐다. 누 남쪽 다리 위의 길은 너비가 5척이고 다리 아래 7개의 홍예에는 각각 쇠로 만든 전문(箭門)을 설치하였다. 줄로 양선(兩扇)을 걸어 당겨서 교면(橋面)의 석안(石眼)까지 꿰뚫고 지나가게 하였으며, 거기에다 고리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달았다.

문 안의 양쪽 석축은 각각 길이가 6보 높이가 4척 5촌이고, 문 밖의 석축은 각각 길이가 5보 높이가 5척 5촌인데, 위로 성의 몸체와 이어져서 전체 높이는 16척이다. 이것이 실지로 내의 동쪽과 내의 서쪽이 서로 마주 서서 휘어 꺾여 원성(元城)이 되었다.

두 끄트머리는 전봉과는 좌우로 각각 29척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또 좌우의 벽돌로 된 첩 위에 타구가 셋인 여장을 설치하여 담과 이어지게 하였다. 높이는 각각 4척 4촌이고 두께는 2척 2촌이다.

• 북동포루

북동포루는 화홍문 서쪽 124보 3척쯤 되는 거리에 있다. 루는 대체로 5좌(座)가 있는데, 그 구조는 모두 똑같다. 성의 몸체에凸자 모양을 붙여 치성과 비슷하게 하고 집을 지었는데, 높이는 포(鋪)와 같다. 3층으로 하여 그 가운데를 비운 점이 마치 공심돈의 구조와 비슷하다.



모두 벽돌을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아래 넓이나 위의 줄어든 넓이가 모두 옛날 제도의 재돌(再突)하는 형세를 따랐다. 화포를 많이 감추어 두어 위 아래에서 한꺼번에 쏘게 하였다.

지대(地臺) 위에다 벽돌을 쌓고 집을 지었는데 5량을 성 밖으로 나오게하고 3영(三楹)으로 길게 하였다. 바깥 쪽 아래 너비 각각 24척, 위의 줄어든 너비 20척, 좌우의 아래 너비 각각 29척, 위의 줄어든 너비 27척, 높이 27척 5촌, 3면 벽 두께 6척, 높이는 들보와 이어져 있고, 두께는 처마 두께와 비슷하다.

바깥 쪽 지대의 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대포 혈석 2개를 놓았다. 좌우 면에도 사이에 3개의 혈석[혈은 사방 각 1척]을 놓았다. 벽돌로 쌓은 공간 안에는 평지에서 위로 5척 되는 곳마다 벽에 의지해서 3면에 포관을 두르고 총혈 15개[사방 각 9촌]를 내었다. 또 포관을 두른 곳에서 10척 쯤 위에는 3간 누판(樓板)을 깔고 누의 위 3면에는 총안 15개를 뚫어 놓았다.

외면의 총안 위에는 또 전안 4개를 뚫었다. 좌우면에는 위쪽으로 벽돌을 뚫고 작은 판문 셋을 설치하였는데, 밖에는 짐승 얼굴을 그리고, 각각 전안을 뚫었다. 문 사이 벽면에는 쌍으로 전안을 뚫어 놓았다. 안쪽은 성탁(城托)에 의지하여 전부를 돌로 쌓고, 그 위에 판문을 설치하였다.

문지방 안의 청(廳)의 끝은 사방 4척쯤 비워서 별도로 덮개판을 설치하여 밀고 당겨 여닫게 하였다. 거기에서 나무 사닥다리를 대어서 아래쪽 공간으로 통하게 하였다. 누 위의 단청은 3토를 사용하였고 들보 위는 회를 발랐다.

• 북동적대



적대는 성문과 웅성에 접근하는 적을 막기 위해 성문의 좌우에 설치한 방어 시설물이다.

포루와 치성은 성곽밖으로 완전히 돌출된 반면 이 적대는 시설물의 반만 외부로 돌출되고 반은 성안으로 돌출되어 있다.

적대는 성곽보다 높게 만들어서 적군의 동태와 접근을 감시하였으며 총안등을 만들어 유사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북동적대는 장안문에서 동쪽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건너있으며 1969년에 보수한 바 있다. 적대의 돌출길이는 8.9m 이고 폭은 6.55m이며 높이는 6.7m에 여장은 옥개부 밑까지 1.24m 이고 두께는 80cm 이다.

남측면에 돌계단 3 단을 두고 사방에 전돌로 여장을 둘렀다. 여장의 중심간의 길이는 남북으로 12.1m, 동서로 5.75m이며凸형 여장이다. 성벽 전면에는 현안 3 개소를 두었다.

• 장안문

장안문[편액은 전 참판 조윤형(曹允亨)이 썼다]은 성의 북문이다.



행궁의 왼쪽 편인데 동쪽으로 780보되는 곳에 사좌(巳坐)해향(亥向)으로 앉았다. 문의 안과 밖은 홍예로 되어 있다. 안쪽 홍예는 높이 19척 너비 18척 2촌이고, 바깥 쪽 홍예는 높이 17척 5촌, 너비 16척 2 촌, 전체 두께는 40척이다.

안쪽의 좌우에 있는 무사(武砂)[성석이 크고 잘 다듬어진 것으로 문 옆의 석면(石面)이 된 것을 무사라 한다]는 각각 아래 너비가 67척 8촌, 높이가 23척 5촌, 왼쪽과 오른쪽의 와장대(臥長臺)는 각 32척 4촌, 섬돌은 각 23척 너비는 17척 2촌이다. 바깥 쪽의 좌우 무사는 각각 너비가 41척 높이가 23척 5촌이다. 안팎의 홍예문 사이에 있는 좌우 무사의 높이는 각 21척, 양쪽 선문(扇門) 안은 철엽(鐵葉)으로 하고 빗장을 설치하였다. 홍예의 덮개 판에는 구름 무늬를, 그리고 판 위에는 세 가지 물건[석회, 가는 모래, 황토]으로 쌓았는데, 두께는 4촌이다. 안팎의 홍예 위에는 장군 모양의 무사와 2층의 장대를 얹었으며 홈통[너비 1척 깊이 5촌]을 네 곳에 설치하였다.

안쪽의 평여장(平女牆)은 너비 88척 7촌, 높이 4척 3촌, 두께 2척 5촌이고 바깥 쪽 여장의 높이 두께도 같으나 너비는 동서장 밖으로 각각 7척 4촌이 나왔다. 이 부분에서는 높이가 6척이 되어 웅성 위의 작은 홍예와 연결되며 타구(口)는 10개[첩(堞)은 11개]를 벌여 놓았다. 그리고 네모진 총혈(銃穴) 12개[네모의 한 쪽 길이는 8촌이며, 첩마다 1 개를 뚫었고, 가운데에 있는 1개의 첩에는 2개의 총혈을 뚫었음]를 내었다. 동쪽과 서쪽의 여장은 너비 3척 5촌, 높이 5척 6촌, 중앙에 각각 작은 판자문을 두었는데 높이는 6척 5촌 너비는 6척이다. 장(牆) 안에는 2

층의 누를 세웠는데 전체 높이는 32척 9촌, 아래 위 각각 10간(間), 가로 너비는 5간 세로 길이는 2간이다.

아래 층[안은 7포, 바깥은 5포] 정면 간의 너비는 22척 5촌인데, 바닥[높이 1척]에는 널판을 깔았다. 오른쪽과 왼쪽 각각 둘 씩 협간(夾間)이 있는데 너비는 모두 12척이며, 세로 길이 2 간이고 전체 길이가 24척이다.

서쪽 협간의 첫째 간과 동쪽 협간의 두 번째 간에는 각각 곡란층계(曲欄層階)를 설치하여 위층으로 통하게 하였다. 서쪽 층계는 북쪽에서 올라가며 동쪽 층계는 남쪽에서 올라간다[서쪽 층계 아래에 살문[箭門]이 있는데 잠가두었다가 임금 오실 때에는 연다].

위층[안팎 모두 7포]은 정면의 간과 좌우 협간은 너비가 모두 하층과 같고 두 번째 협간은 각각 너비가 9척이며, 그 세로가 2간 전체 길이는 18척인데 모두 널판을 깔고, 사면에 널판지 문을 달았다. 그리고 3면에는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려 호로전안(葫蘆箭眼)[널판지마다 구멍이 하나씩 있는데 경(經)이 3촌 직봉(直縫) 역시 3촌이다]을 뚫었는데 안 쪽에는 태극을 그렸다. 단확(丹)은 3토를 사용하였다. 대들보 위에는 회를 발랐으며 문 안 서쪽 가에는 수문청을 별도로 세웠다.[협도(夾刀) 넷을 세웠다]

북옹성은 장안문의 외성이다. 성서(城書)에는 옹성의 크기는 정성(正城)의 대소에 따르며 모양은 옹기를 반으로 나눈 것과 같다고 하였다. 문위에 적루(敵樓)를 세우지 않는 것은 정성이 가로 세워져 있어 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옹성은 정문 좌우의 무사에서 각각 7보 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17척 안쪽 둘레는 159척 6촌 바깥 둘레는 209 척이고, 아래는 두께가 15척이고 위는 줄어 들어서 12척이다.

바깥 쪽에 현안(懸眼) 16개를 뚫었다[각각 길이 2척, 지름 2척 2촌]. 안 쪽에 벽돌로 된 홈통 8개[지름 각 5촌]를 설치하였다. 옛 제도에는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한쪽 문만을 열었으나 지금은 사방으로 열리고 팔방으로 통한다는 뜻을 취하여 중앙에 문을 설치하여 정문과 마주하게 하였다. 양문의 사이는 10보 3척이며 돌로서 안팎으로 홍예를 만들었다.

안쪽의 홍예는 너비가 18척, 높이 19척이고 바깥 홍예는 너비가 16척 높이가 17척 5촌이며 안팎 홍예의 사이는 좌우 높이가 21척이고 양 선문(扇門) 안에는 쇠로서 빗장이 설치 된 것이 정문과 같다. 홍예의 덮개판 위는 세 가지 물건으로 쌓고, 다시 여러 장의 벽돌로 쌓았다. 그 위에 오성지(五星池)[『실정기(實政

記』에 이르기를 오성지는 모양이 구유같고 5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크기는 되(升)만 하다. 적이 문을 불태우려 할때 물을 내려보낼 수 있다]를 설치하였는데, 오성지 전체 길이는 14척 너비는 5척 깊이는 2척이고, 각 구멍의 지름은 1척이다. 오성지 위에는 성가퀴 9첩을 설치하였는데, 전체 너비 38 척이고, 그 좌우는 1층을 낮추어서凸 모양의 성가퀴 7첩을 설치하였다. 너비는 각각 10척 2촌이며 높이는 모두 5척이다.

성과 만나는 곳에서 다시凸의 반쪽 모양으로 층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9척으로 각기 총안을 1구멍씩 뚫었다. 안쪽은 둘레가 평평한 여장으로 높이는 3척 5촌, 두께는 모두 2척 6촌이다. 용성 위는 모두 네모난 전(堦)을 깔고 좌우 끝에는 벽돌로 된 홍예에 작은 판문을 설치하여 성의 위와 통하게 하였다. 문의 양 옆은 평여장을 설치하였는데 높이는 10척 7촌이다.

북성의 적대는 2개로서, 각각 장안문의 좌우 53보 되는 곳에 있다. 옛 제도에는 70보 되는 곳에 1대를 세우고, 활화살 화창(火槍)을 대 위에 갖추어 둔다고 하였다.

성서에는 지금의 성은 화살과 탄환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 비록 창이나 선(鎗)으로 위로 찌른다 해도 전체 높이가 여유가 있고, 대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적이 곧 바로 성 아래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또 포물선으로 날아오는 화살이나 비스듬히 날아오는 탄환도 대위에 있는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 했다.

대략 이 제도대로 하면 대의 높이는 2척으로, 원성의 성가퀴와 나란하고 반은 성 밖으로 나오고 반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바깥쪽의 아래 너비는 26척이고, 위로는 줄어들어 너비가 21척이다.

현안(懸眼)[각각 길이는 20척이고, 지름은 5촌이다]이 3개 있다. 좌우의 아래 너비는 각각 29척이고 위로는 줄어들어 너비가 24척이다.凸 모양의 성가퀴로 둘러쌌는데, 바깥 3면은 11첩(堞)이 있는데 높이는 5척이고 두께는 2척 8촌으로 각각 총안[사방 6촌]을 뚫었다. 내면은 좌우 평평한 성가퀴에 각각 1첩씩인데 높이는 8척 이고 가운데 5척은 속이 비게 하여 돌계단을 설치하여 대 위와 통하게 하였다.

수원 역사박물관

수원역사박물관은 110만 거대 지방자치 단체가 된 수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모든 지방문화 콘텐츠의 바탕은 그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를 충족시켜주는 내용물이 바로 유물·유적, 그리고 전설·설화가 된다.

2003년부터 개관 준비를 해 오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박물관 건립 취지를 이해하고 박유명 초상화(보물 제1489호)를 기증해주신 상주 박씨를 비롯하여 여주 이씨, 안동 김씨, 해주 오씨, 온양 정씨, 파평 윤씨 문중과 김노적 선생 가족의 도움으로 인해 다양한 유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원지역에서 발굴된 유물과 우리시 소재의 창성사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보물 제14호), 팔달문 동종(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9호) 등의 유물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었다. 특히 1950~1960년대의 수원 전경 사진은 매우 희귀하여 우리시의 옛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총489㎡(148평) 규모의 상설 전시장에서는 1960년 전후의 영동시장 거리를 재현하였다. 중앙극장, 공설목욕탕, 수원의 갈비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 화춘옥 등이 과거 모습을 다시 드러내었다.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과거를 알고 체험하는 장소로,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거리로 다가갈 것이다.

수원역사박물관은 중앙이나 국립박물관과 비교하여 고가의 유물은 아니더라도 바로 수원의 특색과 수원다움을 보여주는 수원지방의 소박한 유물들로 채워져 있다. 수원역사박물관의 개관으로 이제 수원 관련 역사자료가 한 곳에 모일 장소가 마련된 셈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학'이 본격적으로 꽃피어 나갈 주춧돌이 놓아진 셈이다.

♣ 상설전시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주제별·장르별로 구성하여 수원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함축적이고 짜임새 있게 구성함으로써 수원의 정체성 확립과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의 주박물관을 지향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경기도 수부 도시로서 문화 관광 벨트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수원은 한반도 중심인 경기남부에 위치하며, 웅장한 광교산의 산세와 수원천의 맑은 물, 안성평야로 이어지는 넓은 곡창지대를 갖춘 살기 좋은 도시이다.

수원은 북동서쪽 외곽으로 광교산맥이 둘러쳐 있으며, 남쪽으로는 평야로 연결되는 분지이다. 광교산맥의 중심 봉우리인 광교산은 수원의 가장 큰 산으로 한강 이남의 경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웅장한 모습을 자랑한다. 광교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광고천, 수원천, 원천천으로 이어져 수원시내를 흘러 황구지천에서 합류하여 안성천을 거쳐 서해로 흘러간다.

수원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 선사시대 ~ 통일신라

수원의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유적지에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구석기유물로는 굽개, 몸돌 등이, 신석기 유물로는 수원관내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편이 있으며, 청동기시대에는 구멍무늬 토기와 간돌검, 간돌화살촉 등이 전시되어 있다.

수원지역은 서해안과 한강하류지역에 위치하여, 백제, 고구려, 신라를 모두 거치면서 삼국의 문화적 역량을 축적한 지역이며, 통일신라시대의 수원과 경기지역은 한산주로 국방상의 요충지로 대중국 교섭통로였다. 삼국시대 유물로는 각종 접시와 단지류 등이 있고, 통일신라시대 뚜껑 달린 굽다리접시 등이 있다.

2. 고려시대 ~ 수원로의 개설

수원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팔달문 동종, 온양 정씨 정희번 교서와 보물 제 1489호로 지정된 박유명 초상화는 그 중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동쪽마을을 이루고 살아온 사람들의 묘 부장품들과 다양한 문서와 고서가 있으며, 수원읍치이전과 화성건설을 전후한 시기 수원의 호구단자, 명문을 통해 당시 읍치이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 일제강점기 ~ 현대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조선은 암흑기에 처하였으나 민중의 저항과 삶은 계속되었다. 수원지역의 주민들은 격렬한 3·1운동의 전개와 청년운동, 소작쟁의 등을 통하여 끝까지 저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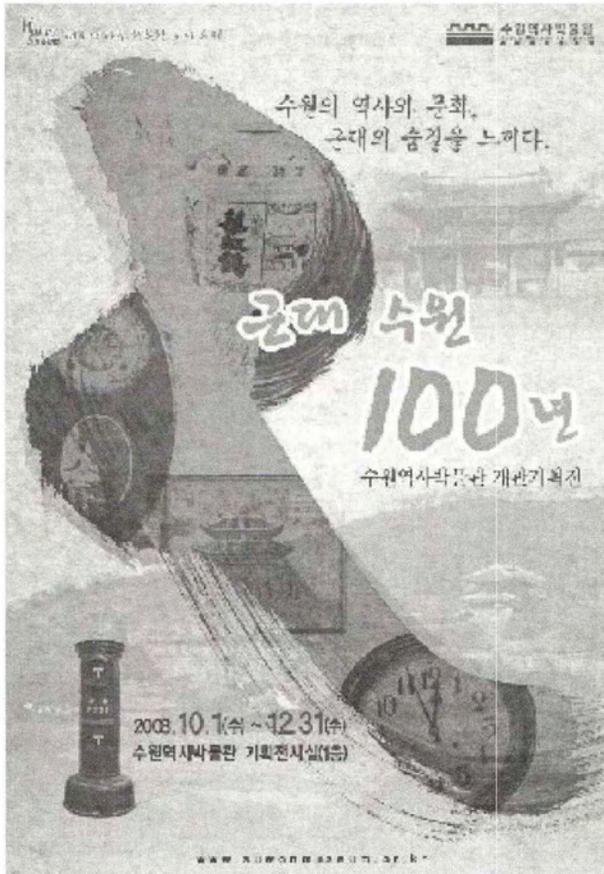
또한 1895년 조선 정부의 근대개혁 속에서 교육 분야에도 학교 설립과 더불어 근대교육이 수원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으며, 일상생활속에서도 다양한 근대 문물이 스며들었다.

당시 일상생활 속의 근대문물과 교육관련 자료들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함께 수원의 근대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수원은 해방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이전으로 경기도의 수부도시로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었다. 수원은 농업연구의 중심도시이며, 1970년대 산업화 이후에는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시대를 반영하는 다양한 사진과 함께 도청이전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남문 영동시장에는 옷을 맞춰 입었던 양장점, 양복점, 생선가게, 잡화점, 쌀집, 전파상, 포목점 등이 있었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병원과 약국들이 있었다. 용인이나 화성군 사람들도 대부분 이곳에 와서 장을 보았다. 이곳은 1960년대 영동시장을 재현한 것이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중앙극장과 공중 목욕탕, 수원 갈비로 유명했던 화춘옥 등을 당시 모습으로 축소 재현해 놓은 공간이다.

♣ 기획전시



전시회명	근대 수원 100년
전시기간	2008. 10. 01 ~ 2008. 12. 31
전시목적	수원역사박물관 개관기획전
전시내용	근대 수원 100년
주최	수원역사박물관

참가자명단

시각체험 『성곽』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여 백

연번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1	정순남	여	1938.12.01		국적취득(한국)
2	심경보	남	1936.02.06		국적취득(한국)
3	강선자	여	1937.05.15		국적취득(한국)
4	김인복	여	1940.09.11		국적취득(한국)
5	채말원	남	1949.09.19		중국
6	박영수	남	1963.02.06		중국
7	김계숙	여	1940.10.01		중국
8	장화숙	여	1940.04.20		중국
9	조옥화	여	1942.04.11		국적취득(한국)
10	강영순	여	1937.09.02		국적취득(한국)
11	서광만	남	1946.10.16		중국
12	최명숙	여	1944.12.30		중국
13	임명자	여	1934.01.30		국적취득(한국)
14	하병록	남	1943.03.29		중국
15	최금자	여	1944.11.26		국적취득(한국)
16	황정희	여	1942.12.01		국적취득(한국)
17	김은철	남	1946.08.22		국적취득(한국)
18	김정경	남	1939.03.02		국적취득(한국)
19	최명국	남	1936.04.05		중국
20	전향자	여	1960.09.07		중국

연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21	황보길	남	1942.11.10		중국
22	정기현	남	1941.04.29		중국
23	이순희	여	1947.06.05		중국
24	정은숙	여	1945.04.07		중국
25	김진자	여	1941.07.08		국적취득(한국)
26	팔비즈	남	1972.06.24		이란
27	알롬	남	1972,01.01		방글라데시
28	고폴	남	1969.10.03		방글라데시
29	루스텀 알리	남	1965.03.02		방글라데시
30	나주럴	남	1962.01.01		방글라데시
31	줄리	여	1972.02.02		방글라데시
32	지산	남	2002.03.27		방글라데시
33	마리아	여	1972.08.25		필리핀
34	이이라나	여	1962.08.18		러시아
35	로레나	여	1970.03.09		필리핀
36	박관삼	남	1971.08.08		다문화부장
37	이상린	남	1934.12.05		소장
38	이원희	여	1972.01.06		직원
39	고미화	여	1965.03.05		직원
40	김영옥	여	1948.12.10		담당

발행일 2008년 10월
발행인 남선우
편집인 김성문 · 신미영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전 화 (031) 239-1020
E-mail kccf-kg21@hanmail.net
Homepage <http://kccfgg.or.kr>

※ 본 책자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